

FIFA랭킹 관리해야는데... 홍명보호 '세대교체' 딜레마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른 홍명보호가 '세대교체' 딜레마에 빠졌다. 쿠웨이트와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을 4-0 대승으로 마친 홍명보호는 이제 본격적인 월드컵 모드에 돌입한다. 문제는 1년여 남은 월드컵 준비 기간에 있을 A매치를 어떻게 치르느냐. '젊은 피'에 기회를 줘 전체 전력을 끌어올릴 것인지, 유리한 조 추첨을 위해 결과에 집중할 건지를 두고 홍명보 감독이 고심에 빠졌다.

6월 현재 한국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23위다.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이라크(2-0 승), 쿠웨이트(4-0 승)를 연파했으나, 7월 발표될 순위는 지금과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랭킹은 오는 12월 진행될 월드컵 조 추첨에서 2번 포트와 3번 포트의 경계선에 있는 순위다.

한국이 어느 포트에 속해 조 추첨을 치르느냐는, 북중미월드컵에서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48개국으로 늘어난 이번 월드컵은 1번 포트에 공동 개최국인 미국(16위), 멕시코(17위), 캐나다(30위)와 FIFA 랭킹 상위 9개국 이 들어간다.

그다음 높은 12개국 이 2번 포트에, 그다음 12개국 이 3번 포트에 포함된다. 마지막 4번 포트는 그다음 랭킹 6개국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PO)에서 승리한 2개국, 유럽축구연맹(UEFA) PO에서 생존한 4개국으로 구성된다. 당연히 상위 포트에 배정될수록 조별리그 경쟁은 수월해진다.

한국의 현재 순위는 상위 랭커들이 모두 본선에 진출한다고 가정할 때 2번 포트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다. 자칫 남은 시간 A매치 성적이 안 좋아 랭킹이 내려가면 2번 포트는 장담할 수 없



12월 예정된 월드컵 조 추첨 앞두고 랭킹 관리 절실
6월 기준 23위로 2번 포트와 3번 포트 경계에 있어
결과에 치중할지, 젊은 피에 기회 줘 전력 올릴지 고심

다.

즉, 한국이 2번 포트에 들어가려면 조 추첨 전까지 최대한 랭킹을 끌어올리거나, 최소한 떨어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홍 감독은 9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멕시코와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두 팀 모두 한국보다 랭킹이 위다.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얘기다.

랭킹을 관리하려면,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과 핵심 멤버들을 총동원해야 한다.

홍 감독은 고민은 여기에 있다. 이미 겹증이 끝난 베테랑으로 계속 팀을 꾸려간다면, 젊은 피의 성장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이는 1년 뒤 대표팀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남은 기간 최대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대표팀의 월드컵 경쟁력이 높아진다.

실제로 이번 쿠웨이트전에서 이강인을 비롯해 배준호(스톡크시티), 오현규(헙크), 전진우(전북), 이한범(미트윌란), 김주성

(서울) 등 젊은 피의 활약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운 계기가 됐다.

홍 감독도 당장은 2번 포트를 지키는 것보다 어린 선수의 기량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둘 작정이다.

그는 쿠웨이트전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평가전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경기를 통해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거라고 확실한 답을 내리진 않았으나, 불확실한 랭킹 관리보다 대표팀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표팀은 9월 미국 원정 2연전을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도 두 차례씩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10월과 11월 A매치 평가전 4경기는 안방에서 치를 확률이 높다. /뉴시스

강진서 펼쳐지는 승격의 드라마 'K5·K6 리그' 개막

아마추어 축구의 별들이 모여 K-리그 진입 향한 레이스

전남 지역 생활축구의 최상위 리그인 '2025 K5·K6 전남권역 리그'가 스포츠메카 강진에서 5월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K6 전남 리그는 총 8개 팀(강진FC, 여수마리너스, 나주시, 장흥군청, 장성 적토마, 진도보배, 화순화순사랑)이 참가하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팀별 7경기를 치른다. 각 우승 팀은 차기 시즌 K5 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한 단계 상위 리그인 K5 전남권역 리그는 총 6개 팀(강진청자FC, 신안 FC, 순천금당FC, 진도보배, 여수아름 FC, 보성군)이 강진청자2구장에서 리그를 치르고 있으며, 최종 1위 팀에게는 K5 전국 왕중왕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대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강진에서 치러지는 K5·K6 리그가 한국 축구 리그 시스템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관문이라는 점에 있다.

한국 축구는 K리그(K1)부터 K리그(K7)까지 총 7단계로 구성된 피라미드형 리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성적에 따라 상위 리그로 올라가거나 하위 리그로 내려가는 승강제(昇降制)가 적용된다.

최상위 리그인 K1리그는 국내 프로 축구의 정점에 해당하며, 수원, 전북, 울산 등 유명 구단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 아래인 K2리그 역시 프로리그로 운영되며, K1과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팀이 이동한다. K2 1위 팀은 자동 승격되며, 2~4위 팀은 K1 11위 팀과의 승강전을 통해 K1 진입을 노릴 수 있다. K3, K4 리그는 세미프로 수준의 리그로, 이들은 대한축구협회(KFA)의 주관 아래 운영되며, 매년 성적에 따라 자동 승강제가 이루어진다. 단, 상위 리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 운영 체계, 재정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K5, K6, K7 리그는 지역 기반의 순수 아마추어 리그다. 전국 각 권역별로 나눠 리그가 운영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상위 리그로 승격할 수 있다.

K7에서 시작한 팀이 성적을 쌓고 승격 요건을 갖추면 K6, K5로 오를 수 있으며, 단 K4 리그 진입 시에는 정식 구단 창단이 먼저 이뤄지고 그 후, K3를 거쳐 결국 K리그(K2-K1)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생활축구팀도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한국 축구의 특징이다.

이러한 도전의 무대가 바로 강진에서 펼쳐지고 있다. K5·K6 전남권역 리그는 각 팀이 실력을 겨루며 승격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 따라 시즌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경기 일정은 K6 리그가 6월 29일, 7월 13일, 9월 7일, 10월 12일에 강진종합운동장에서, K5 리그는 6월 29일, 7월 6일, 9월 7일에 강진청자2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준 높은 경기력과 함께, 리그의 승격권을 놓고 펼쳐질 경쟁도 군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선수 모두가 부상 없이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메카 강진군 이미지를 굳건히 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주말 국제자동차경주장서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가족형 복합문화축제로 진행

전라남도가 지원하고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운영을 맡은 ㈜코리아모빌리티그룹(KMG)이 주최하는 '2025 KIC-컵(CUP) 투어링카 레이스' 개막전이 14일부터 이틀간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가족형 복합문화축제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문화행사 브랜드 'MOTO JOY'를 처음 도입, 모터스포츠의 역동성과 감성을 동시에 체험할 다채로운 콘텐츠를 구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경주장 이미지에서 벗어나, 관람을 넘어 참여로 확장되는 열린 스포츠 문화 형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IC-CUP 투어링카 레이스'는 코리아모빌리티그룹이 주최하는 대표 입문형 대회로, 매년 5회 열린다.

참가자는 1천600cc 튜닝차량으로 진행되는 'KIC-스프린트'와, 개인 최고 주행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타임트라이얼(Time Trial)' 종목에서 경쟁에 나선다. 모터스포츠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쉽게 그 매력을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 시즌 개막전에는 총 6개 종목, 110대 차량이 참가할 예정이다. 모터사이클(400cc/1천cc), 드리프트, 슈퍼UTV 타임어택 등 박진감 넘치는 주행종목이 함께 펼쳐진다.

코리아모빌리티그룹은 경주장 민간 위탁 전환 첫 해를 맞아, 단순한 속도와 경쟁의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생활 스포츠문화 플랫폼'으로 재정립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MOTO JOY' 브랜드를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 모터스포츠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람객의 접근성과 흥미를 높이는 전략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행사 기간 운영되는 미니목장 'Kid Zoo'에서는 양, 미니 말, 돼지, 염소, 기니피그, 앵무새 등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는 교감형 체험이 가능하다.

어린이 관람객은 보더폴리와 함께하는 원반 던지기, 안전요원과 함께하는 2인승 카트 체험, 페이스페인팅, 키다리 아저씨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통해 경주장이라는 공간을 친근하게



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불파이톤 뱀, 뉴기니아 앵무새, 서플랜드 쉽 등 특별한 동물과의 인증샷 체험은 SNS 공유를 통해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확산 효과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문 드리프트 선수와 함께 하는 택시 동승 체험, 오프로드에서의 버가카 동승 체험 등 속도와 스릴을 운몸으로 느끼는 프로그램은 모터스포츠의 진정한 매력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체험 콘텐츠는 무료이며, 일부 체험은 현장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김명수 기자

북구, '제5회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개최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북구 드론공원에서 진행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북구드론공원(추암로 44)에서 '제5회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는 드론 레저문화 확산과 인적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북구가 지난 202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드론 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와 (사)대한드론축구협회(KDSA)의 경기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초중부'를 비롯해 '세미프로', '마스터즈', '챌린저스' 등 4개 리그에 총 48개 팀 총 500여 명의 드론 동호인이 참여하여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14일에는 대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개회식을 비롯해 세미프로(8팀), 마스터즈(8팀), 초중부(16팀)의 예선·4강·결승 경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15일에는 챌린저스(16팀)의 예선·4강·결승 경기 및 시니어 이벤트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

다.

리그별 순위 결정 방법은 '세미프로'의 경우 모든 팀이 한 번 이상 경기를 진행한 뒤 다승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풀리그 방식이고 나머지 3개 리그는 조별 예선을 거쳐 상위 팀들이 4강에 진출하는 리그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결과 리그별 1위부터 4위까지의 팀에는 상패·상장 수여와 함께 1천 4백만 원 규모 상금이 순위별로 차등 지급되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에게는 수상 여부에 상관없이 펜타카드, 스카이크 예보 등 드론 관련 상품이 주어질 계획이다.

/전혜경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찰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방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원형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監監(하)한화/건설

HDC 엔지니어링개발

062) 607-8338